

# 메주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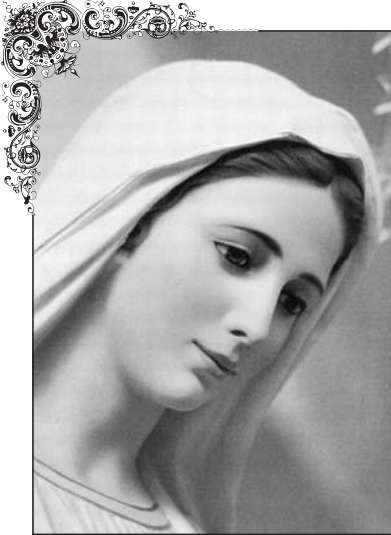


Medjugorje

June, 2008 발간 27주년 특집 제44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꽃과 같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또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져다주어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께서 너희 삶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빛과 기쁨이 되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전 세계인들에게 주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4월 25일 메시지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추기경의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지에 대한 입장 표명

2008년 3월 21일 사라예보 대교구의 이반 톨 리가 출판한  
"Večernji list"와 빈코 플뤼치 추기경의 인터뷰



빈코 플뤼치 추기경

질문 : 교황청 국무원장 따르치시오 베르토네 Tarcisio Bertono 추기경께서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의 고찰을 통해 메주고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는 이런 요청에 대해 토론을 했는지요? 또한 메주고리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것입니까?

**플뤼치 추기경 :** 저희 주교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메주고리에는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교황청에서 내린 결정에 의한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 주교회의  
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 위원회의 작업 이후, 주교회의  
는 이미 메주고리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 사목적인 배려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  
다. 그 이후 조사위원회가 특별히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은 없으며 메주고리에 성모 발  
현지에 대한 지난 주교회의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봉사자들을 봉헌합니다.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모든 사제님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을 봉헌합니다.
- 김신부님을 성모님 품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세요.
- 저희 부부에게 건강한 아기를 선물로 허락하소서.
- 동생의 치유와 친정어머니 헬레나의 선종을 간구합니다.
- 성모님, 동생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주세요..
- 제발, 도박에서 벗어나고 모든 빛을 감도록 도와 주세요.
- 냉담중인 아들과 알콜중독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느리가 너무 고생합니다. 치유를 허락하소서.
- 성모님, 25년전 낙태시킨 아기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 끊임없는 병마에서 탈출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 예수님, 성모님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죽은 모든 연옥 영혼들과 낙태아이들의 영혼과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 성모님,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 봉헌해주소서.
- 부모님과 동생, 친척들의 마음에 화해와 일치를 주시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 예수님, 남편을 위해 54일 기도를 봉헌하오니 저의 부부에게 성 가정의 은총을 허락해주소서.
- 성모님, 정선희와 조상들의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000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희탁 요한, 한세희 아네스의 수도성소를 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000형제가 회개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친정어머니가 성모님과 당신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 메주고리예 성모성심께 청하오니 000를 마약과 나쁜 친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 성모님, 000가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주님과 함께 더욱 더 하느님의 자비를 재발견하여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 예수님 성모님, 영육으로 황폐해진 000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버지 100일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조카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히 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어머니 막달레나를 위하여 성모님,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 아들에게 큰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 둘째 아들 가정에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 허락하시고 하느님 일꾼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동생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주소서.
- 무당이 된 00와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있사오니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 인종, 민족, 국적, 종교를 떠나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가정의 사랑, 평화, 용서를, 남편의 알콜중독 치유와 시부모님의 화해, 수술의 위험에서 성모님께 의지합니다.
- 성모님! 친정가족,자녀, 대녀에게 모두 굳은 믿음을 주시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소서.
-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연옥영혼들, 000가정의 모든 은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4월 메주고리예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 마리오 쳇끼니 주교 -



1989년 내가 처음 메주고리에 왔던 때는 이탈리아 주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유는 관할 교구 주교가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메주고리를 오고 싶었던 나는 이곳에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고, 그 이후로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56명의 교구 신자들과 함께 왔는데 모두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메주고리에서 받은 첫 인상은 이곳의 사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교구장이 반대하고 있었고, 교황청은 메주고리의 발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추기경들과 주교들, 사제들과 신자들이 메주고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메주고리에 올 때 마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은 교구차원에서 매년 4 회 메주고리 순례를 신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구내에서의 메주고리에 열매

세네갈리아 교구에서는 항상 많은 신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고 사제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세네갈리아 교구는 이탈리아의 다른 교구들에 비해 많은 사제 성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소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설립한 자비와 은총의 어머니 성지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를 합니다. 특히 젊은 이들이 그런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소를 느끼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많은나라 주

교들을 비롯한 한국주교들도 메주고리로의 순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곳을 간다니까 많은 이탈리아 동료주교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교황청이 인준하지 않은 곳에 주교가 거긴 뭐하러 가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폴란드 주교들은 로마에서 교황님을 알현하러 갈때마다 꼭 메주고리를 순례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향 주교들이 로마로 교황님을 알현하러 갈 때 메주고리를 들러간다는 것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허락해 주시는것이라구요! 폴란드 주교들이 가는 메주고리를 이탈리아 주교인 내가 못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 없이 갔습니다. 어떤 주교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신자들에게 건강한 신심과 기도를 가르쳐 주는 매우 유익한 곳입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의 주교로서 이곳은 우리가 교구차원에서 순례할 정도로 성숙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연히 신심도 성장합니다. 멀지않은 때에 로마의 바티칸이 성모님 발현에 대한 진실을 언급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 때 합시다. 우리 교구에서는 메주고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매년 교구 차원에서 네 번의 순례를 하는데 항상 70~ 80여명의 신자들이 함께 옵니다. 올 7월과 8월, 12월에도 교구 차원으로 이곳을 찾아 올 것입니다!

### 사람들의 변화된 삶과 행동으로 전해지는 메주고리에

교회가 아직 공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메주고리를 인준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수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추기경들과 주교들,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먼 길을 불구하고 기꺼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이를 허락한다는 뚜렷

한 표시입니다! 메주고리예가 성모신심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굳은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교회 법상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메주고리예는 이미 외적인 반대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모스타르 교구장이 반대하니까, 한국 주교님들도 메주고리예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교로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곳을 옵니다. 제가 교구장으로서는 예수-마리아-요셉 성 가정을 관할하고 있을 때 메주고리예를 갖다 온 신자들이 교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에는 우리교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세상의 쾌락을 찾아 놀고 먹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 시키고자 먼길을 떠나 이곳을 찾아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신자들도 많이 봅니다. 순례를 올 때 지도사제들이 동행하여 신자들의 변화를 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직 메주고리예에 대한 공식 인준은 없지만 교회는 이곳의 순례와 사제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이미 허락했습니다. 금년은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셨던 1981년 6월 24일부터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아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는 일과는 매일 3시간씩의 전례에 참석하고 산과 들의 땅바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의 주교로서 이곳에서 거룩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곳을 왔던 사람들은 말로 이곳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된 삶과 행동을 보고 이곳을 오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구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비스카를 만났습니다. 성모님께서 26년 전 여섯 명에게 처음 발현하셨었는데, 이런 일을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6명의 목격자들에게 열 가지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과 또, 앞으로 그 비밀들이 실현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2000년에 발표되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여러 번 조국 폴란드에 가시어 성모신심을 고양시키곤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것처럼 이곳에서도 성모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어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특히 동유럽의 많은 신자들이 찾아오지만 27년은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특별한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성모님의 역할이 있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모님께서 분명 표징을 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서양에서 동양까지 공산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이곳 동유럽도 공산이념에 짓밟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당의 이념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얼마 전부터 공산당이 점차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온 세상에 공산이념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발현언덕에 성모상이 세워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틀림없이 무엇인가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인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모님의 개입으로 러시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국의 회개일 수도 있고 동양전체의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M**

#### 마리오 헛끼니 주교님의 양력

1933년 이탈리아 세니갈리아 교구의 아르체비아에서 출생하셨다. 1958년 3월 16일 사제서품을 받으셨으며 1986년 2월 11일 이탈리아 마르께주에 속한 파노 풋송브로네 칼리 베르골라 주교 서품되시어 교구장으로 착좌하셨다. 1998년 9월 8일 은퇴하셨다. 파노 교구는 한국 신자들이 잘 아는 로렷도 국제성모성지로서 나자렛 성지라고도 불려지는 곳의 인근에 있다.



2008년 3월 20일 마리오 헛끼니 주교님과 남 마르타 자매와의 인터뷰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27주년과 교회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성모님의 발현을 믿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 모스타르 교구장 파바오 자니치 주교 1981년 8월 -

성모님 발현에 대한 모든 조사와 인준 문제는 발현지 관할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 일차적인 권한이 있다. 1981년 6월 24일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서 발현하신 후 메주고리에 본당이 속해 있는 모스타르 교구장 파바오 자니치 주교(1971~1993)는 발현 첫 두 달 동안 다섯 번이나 메주고리를 방문하여 성모님 발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1981년 7월 25일 메주고리에 본당의 한 강론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다. "어떤 아이도 그들이 성모님을 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단 한 명의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고집 센 어린이라서 경찰조차도 그의 말을 부인하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순박한 여섯 아이가, 비록 압력은 받았을망정 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한 사제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저는 또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

은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또 1981년 8월 16일 자 크로아티아 가톨릭 신문 「글라스 콘칠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 누구도, 특히 교회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구장 자니치 주교와는 반대로, 당시 메주고리에 본당 요조 조브코 신부는 발현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자니치 주교가 요조 신부를 불러 "성모님 발현을 과감하게 믿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의 주시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요조 신부는 오히려 자니치 주교에게, 서두르지 말고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현 사건이 가톨릭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공산정부의 음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 공산정부는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굽지 않은 눈으로 보았다. 공산정부는 1981년 7월 4일 메주고리에 사건을 반동혁명으로 선포했다. 비밀경찰이 파바오 자니치 주교를 심문하기 위해 사라예보에 있는 그들의 본부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요조 조브코 신부도 불러들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자니치 주교는 발현에 관해 말을 아꼈다. 한편 본당신부로서 성모님의 발현을 조

금씩 믿기 시작한 요조 신부는, 본당에서 발현목격증인들과 신자들과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다가 직접 성모님 발현을 체험하고는, 성모님 발현을 완전히 믿고 발현목격증인들의 대변인이 되었다. 1981년 8월 17일 요조 신부는 발현 사건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3년 반의 감옥 생활을 선고받았다. 발현 초기에 적극적으로 성모님 발현을 믿었던 교구장 자니치 주교가 공산당의 압력에 절대적인 반대자로 돌아서게 된다. 반면 처음엔 믿지 않았던 요조 신부는 공산당의 압력과 성모님 발현 체험 후에 적극적인 발현 옹호자로서 심한 고문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일 년 반 만에 풀려나게 된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거짓된 것이다.

- 모스타르 교구장 파바오 자니치 주교 1984년 10월 30일 -

한동안의 침묵을 깬 파바오 자니치 주교가 메주고리에 사건에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한 두 개의 성명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1984년 10월 30일 자 「메주고리에 사건에 관한 모스타르 주교의 현(비공식) 입장」 과, 「1990년 메주고리에」 이다. 이 성명서들을 통해 자니치 주교는 전 세계 주교들과 언론에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거짓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언론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메주고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 사건에 대한 진상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는

### 자니치 주교가 개인적 판단으로 의견을 발표하지 말 것

- 1985년 4월 1일 바티칸 국무성 -

그리하여 1985년 4월 1일 바티칸 국무성은 공식 회담을 통해 크로아티아 추기경 프란요 꾸하리치 (Franjo Kuharic)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도록 했다. 모든 요소들이 다 수집되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는 자니치 주교가 개인적 판단으로 의견을 발표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불행히도 자니치 주교는 이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2년 1월, 들끓는 여론에 밀린 자니치 주교가 네 명으로 구성된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조사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를 몇 차례 방문하지도 않은 이 조직은 별 성과도 내지 못했다. 1984년 2월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의 권고로 자니치 주교는 이 위원회를 14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위원이 이미 메주고리에 사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 사람들이었다. 1984년 10월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 위원회는 최종 성명서를 채택했고, 자니치 주교가 조사보고서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올렸다. 그러나 1986년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쥬거 추기경(현 교황 베네딕토 16세)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권한을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에 넘긴다. 이는 자니치 주교의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심지어는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유감스럽게도 자니치 주교의 후임인 현 모스타르 교구장 라트코 페리치 주교는 메주고리에 발현과 관련하여 선입자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는 견진성사를 집전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공식적인 이유로 방문해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메주고리에 본당을 방문하지 않았다. 2001년 6월 14일, 메주고리에 야고보 본당에서 견진성사 강론 중에 자신은 메주고리에 발현의 초자연적 성격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교구장 주교를 비롯해 모든 주교들의 주의와

### 사목적 관심이 요청된다.

-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

1991년 4월 10일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는 자다르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주교들은 처음부터 모

스타르 교구장 주교, 교구 메주고리에 특별위원회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메주고리에 특별위원회를 통해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메주고리가 초자연적 발현과 계시와 상관있다고 아직은 확정적으로 천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동기와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메주고리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은 교구장 주교를 비롯해 모든 주교들의 주의와 사목적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메주고리에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건강한 신심행위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교들은 특별히 적절한 전례-사목 지침서를 발간할 것이다. 더불어 특별위원회도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계속 조사할 것이다."

이 선언문에서 유고슬라비아 주교들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메주고리가 초자연적 발현과 계시와 상관있다고 아직은 확정적으로 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발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맺고 있는 좋은 열매들을 보고 자니치 주교가 타협한 데서 나온 것이다. 메주고리에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주교들은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특별히 적합한 전례-사목 지침서를 발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91년 6월 17일 몇몇 주교가 메주고리를 공식 방문했다. 모스타르에 가기 하루 전, 그들은 메주고리에 본당 사목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메주고리에 본당 사목위원회가 1991년 6월 27일 다시 만나기로 한 하루 전 날,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를 공격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발발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도 해체되었다. 현재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대한 진상 조사 권한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에 넘겨진 상태이다.

**"메주고리에 순례는 누구나 원한다면 갈 수 있다.  
사제들이 함께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된다."**

- 호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 -

1996년 6월 초부터 많은 언론에서는 바티칸이 메주고리에 순례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호아킨 나바로-발스 교황

청 대변인은 즉각 이를 반박했다. 그는 8월 21일자 '가톨릭 뉴스 서비스'에서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면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서 가톨릭 신자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남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가톨릭 신자들과 사제들이 함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처럼 평신도가 조직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에 순례단에 사제들이 함께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되며, 메주고리에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모스타르 교구장 주교의 발표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목자들이 함께하는 순례가 허락된 것입니다."**

-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 -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 라짱거 - 현 베네딕토 16세 교황)

1998년 5월 16일, 프랑스 썬드니 텔 라 흐위농 교구장 길 베르 오브리 주교가 메주고리에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을 신앙교리성에 문의하자 신앙교리성은 이렇게 대답했다 :

"공경하올 주교님, 주교님께서는 1998년 1월 1일 편지에서, 본 신앙교리성에 이른바 메주고리에의 발현과 사적인 순례, 그리고 그 순례자들에 대한 사목적인 관리에 대하여 교황청과 모스타르 주교의 입장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교님께서 제시하신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적하고 싶은 주된 사항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현상에 대해서 교황청이 일반적으로 초심 법원으로 나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발현'에 관한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본 성에서는 옛 유고슬라비아 주교단이 1991년 4월 10일 자다르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초자연적인 발현과 계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독립 국가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결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에서 본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페리치 주교가 '그리스도인 가정(Famille Chretienne)'의 사무총장에게 쓴 편지에서 주장한 '메주고리에의 발현이나 계시에 대한 내 확신과 태도는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기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일 뿐만 아니라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정함)입



니다.' 라는 말은 모스타르 주교로서, 지역 교구장으로서, 표현할 권리가 있는 개인적 확신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주고리에 순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순례라면, 현재 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인 사건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본 성은 순례가 허락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성에 제출하신 것들 가운데 최소한의 주요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교님께서 제가 올리는 의견을 살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도 하고, 당신을 알현하기 위해 온 주교가 메주고리에에 관한 교황님의 의견을 물으셨을 때는 "메주고리에, 그곳은 현대 영성의 중심지입니다. 메주고리에에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교황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곳에 방문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 메주고리에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입장을 알려주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파벨 흐닐카(Pavel Hnilca) 주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슬로바키아 출신의 흐닐카 주교는 50년대부터 로마에 머물러 교황님의 오랜 친구로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1984년 3월 35일 교황님께서 전세계 주교들과 함께 티 없으신 성

모 성심계 러시아를 봉헌할 때, 그는 교황님의 명으로 러시아에 들어가 같은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2005년 5월 2일 Bishop Claims John Paul Told Him to Visit Medjugorje in Disguise라는 제목으로 실린 독일 가톨릭 월간지 PUR 기자 마리에 체민(Marie Czemin)과의 대담에서 흐닐카 주교는 다음과 같이 교황님의 입장을 알려주고 있다. "1984년 교황님의 여름 별장 카스텔 간돌포에 가서 교황님과 점심을 함께 할 때 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제게 메주고리에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처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메주고리에를 방문하도록 요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리아론 학자인 르네 로랑탕(Rene Laurentin)신부가 쓴 메주고리에 관한 책을 보여주며 그 안에 들어있는 메주고리에 메시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는 파티마 메시지의 연장이며, 성모님께서서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문제들 때문에 계속 공산국가에서 발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8월 1일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들에 대해 의학 적 검증을 실시했던 밀라노의 의사들이 카스텔 간돌포에서 교황님을 알현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스타르 교구장이 자신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황께서는 "그분이 그곳 주교이기에 여러분은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편지의 요점입니다.

1. 모스타르 교구장 주교의 발표는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교회의 공식적인 최종 판결은 없습니다.
2. 자다르의 발표문에 따르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조사에 따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사목자들이 함께하는 신자들의 사적인 순례는 허용됩니다.
3. 결국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4. 그동안 모든 가톨릭 신자는 메주고리에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 라쟁거)

**"내가 교황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곳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수많은 경로를 통해 2005년 4월 2일 세상을 떠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메주고리에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표명하셨다. 폴란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기도 중에 매일 메주고리에에 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

리나 그분이 만일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기도, 단식 그리고 성사들을 통해 그 감각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로 이 점이 메주고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 메주고리에 순례는 허용되어 있다. 메주고리에가 속했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교회의는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함을 결정했고, 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또한 교황청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교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에 순례를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현재 상황에서 그 누구도 메주고리에 순례를 막을 권한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메주고리에가 속한 교구인 모스타르 교구장이 여전히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메주고리에 발현은 잘못된 것이고,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위에서 본 대로 1984년 현지 교구장 자니치 주교가 메주고리를 반대하는 보고서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올렸을 때, 현 교황님이신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 라쟁거 추기경께서 그를 검토한 후, 1986년 현지 교구장 주교에게서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조사 및 인준 권한을 박탈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1998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메주고리에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 모스타르 교구 자니치 주교의 후임인 페리치 주교의 입장 역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이라고 천명한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스타르 교구장인 페리치 주교는 여전히 전 세계 주교들에게 다시 한 번 편지를 보내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진짜가 아니니 순례를 금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교황청에서 메주고리에에 대한 그의 의견은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순례는 허락되어 있다고 공표했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불순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에 동

조하여 메주고리에 순례를 금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역시 반교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17년에 있었던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이 1930년에 가서야 교회 인준을 받았고,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선 메주고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 성모님 발현의 진위를 다리는 세 가지 기준

1. 발현목격증인들이 성모님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2. 발현목격증인들이 그 메시지에 따라 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3. 발현목격증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받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따라 살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메주고리를 통해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발현목격증인들은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다. 지난 26년 11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3천 5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메주고리를 다녀갔다.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라! 그 열매가 우리에게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참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마태 7:17,20). **M**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사브리나 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성모님께서 성당 안에서 발현하셨습니까?

요조 신부 : 성당 안에서 만이 아닙니다. 발현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있는 포도밭과 숲 속, 집에서 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경찰을 피해 늘 쫓겨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성모님 발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조 신부 :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성모님을 처음 본 그날은 아이들이 제대에 있는 제 곁으로 왔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서 제가 먼저 묵주기도를 인도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성가를 부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하도록 초대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주셨습니다. 발현이 끝난 뒤 저희는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지향으로 다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신부님과 아이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당에서 발현하셨군요!

요조 신부 : 그렇습니다. 동정녀께서 수천 명이 성당 안과 밖을 잔뜩 메우고 있는 성당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할 정도였고, 손을 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대가 있는 곳이나 제 옆이나 ... 어느 곳이나 사람들로 가득차서 심지어는 제의방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질문 : 신문에서 신부님을 비난하고 있을 때도 주교님은 아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과 주교님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요조 신부 : 좋은 관계였습니다. (...) 그러나 주교님도 공산당원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교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던 저는 운전하는게 염려스러워 이반 칠리치 신부님께 모스타르까지 태워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주교님께서서는 저만 따로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주교님은 저를 응접실 창문가로 데리고 가시더니, 눈에 눈물이 잔뜩 고인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조 신부님, 제가 사라예보로 호출당했습니다. (...) 계속 메주고리예를 보호하고 성모님이 발현하신다고 하면 저를 체포하겠답니다. 저는 주교입니다! 고작 메주고리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요조 신부님, 공산당원들이 저를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1981년 모스타 교구의 -자니치 파바오 주교 -

다." 저는 주교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얼마가 지나서 두 명의 프란치스코 사제들이 포함된 열 두명의 신부님들이 주교님을 찾아가 추궁하면서 메주고리에 때문에 주교직에서 면직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현초기 과학실험을 받고 있는 목격자들

"요조 신부님, 나는 주교직에서 면직당해 시골 마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시골 마을의 보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교입니다." 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원들이 재판에서 30 여명이나 되는 증인들 앞에서 저에게 강제로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던 그 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뒤, 주교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공산당원들이 주교님께 제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주교님께서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더군요. (...)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독한 뒤 누군가 제게 그 사실을 물었을 때, "주님을 모독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주교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분을 판단하고 대항하면서 그분이 가려는 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척 유감이었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 그 누구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 다만 제가 늘 존경하던 주교님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질문 :** 그 당시 주교님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에 신부님이 늑대들의 손에 던져졌던 거군요?

**요조 신부 :** 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교님께서 사제로서 진실을 외면하신 것과 성모님 발현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숨기시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부터 주교님은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위해 메주고리에의 발현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시고 이유도 없이 비판하고 맹목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그 당시 자신들의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었던 많은 사람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 까봐 두려워서 메주고리를 반대할

이유만을 찾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례자들에게 두려움에 속박되어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질문 :** 주교님께서 공산정부가 두려워 메주고리에의 발현을 거짓이라고 하셨군요?

**요조 신부 :** 주교님은

제게 보낸 편지에서 공개적으로 메주고리를 반대하셨습니다. 성모님 발현이 있기 전 저는 유고슬라비아 주교위원회 산하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으로 15년째 교리교육 활동에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모스타르의 보좌주교님이셨던 당시의 주교님께서 그런 저에게 축하전문을 보내기까지 하셨지요. 또 저는 어린아이들의 교리교육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서 교황 바오로 6세를 개인적으로 알현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 누구든지 제 활동을 아는 사람은 저의 교리교육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믿어 주었고, 함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행동들을 무척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조 신부님, 공산당원들이 저를 가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진짜 주교님을 감옥에 가두었을 겁니다. (...) 저도 발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기에 그런 주교님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온 한 사제와 다른 사제들의 행동과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질문 :** 로마에서 온 신부님들과 사제들이 주교님을 위협했다는 말씀입니까?

**요조 신부 :** 아닙니다. 로마에서 온 어느 사제의 말을 들은 주교님 측근에 있는 사제들이 그런 것입니다. 모르죠,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러나 주교님께서 제게 한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교님께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메주고리에의 발현에 개입하셔서 진실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메주고리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스파(성모님)가 필요하지 않다구요, 주교님!”

**질문 :** 그 후 진실을 모르는 기자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요조 신부 :** 마을은 온 통 할 일 없이 오락가락하는 경찰 들뿐이라서 도대체 누가 스파이고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 회의실에서는 매일 회의가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호출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수도복을 입은 채로 불러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조작했다는 것, '우스타스키'와 적의 계획이라는 것... 그때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동지들! 헤르체고비나 전 지역의 모든 마을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모범 군인으로 훈장까지 받고 2주 전에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발현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 대로라면 그 언덕에 올라가 기도한 나도 적입니까? 나도 당신들이 무찔러야 할 적이란 말이냐구요?" 한 공산당원들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소?" "모스타르입니다." "즉시 여기서 나가시오!" 공산당들은 발언을 한 그 남자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물은 뒤 즉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 마을 사람이 아니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메주고리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에서 오신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다른 사람

들을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쫓아 낸 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처음 발언을 했던 젊은이는 띠호미르 미시치라는 젊은이로 제가 알기로는 2~3달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어디있느냐?"라고 하자 그들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다구요! 다른 부모들도 이런 처사에 항거하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던 신부님도 감옥에서 찾을 수 있었답니다!

**질문 :** 도대체 공산당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나요? 그들을 반대하는 운동에 개입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요조 신부 :** 운동은 무슨 운동, 아닙니다! 메주고리에에는 손에는 묵주를 쥐고 맨 발로 산을 오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 공산정부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고 성당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당은 이곳과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신부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까? 주일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열린 성당을 폐쇄하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장 이곳에서 꺼져버리란 말입니다. 당장요!" ... 오, 그 공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일 저를 협박하고 신문은 매일 거짓으로 가득 찬 뉴스를 만들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매일 치통룩으로 호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전단을 만들어서 해가 지면 몰래 발현 산 언덕에 잔뜩 뿌려두고 그 다음날은 저를 찾아와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주의를 선전하는 뼈라를 발현 산에서 발견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 그들은 매일 매일 그렇게 저를 괴롭히며 협박했습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운전기사가 준 파란색 봉투에는 당장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됩니다! 사제로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곳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M**



## 회개를 향한 여정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 - 2008년 4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꽃과 같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겨우내 모든 잎을 떨구어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돌아  
있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감탄사를 연발  
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따뜻한 봄기운의 위대  
함을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뿐만 아  
니라 작은 들꽃과 풀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에 자  
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라거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창조주,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자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시  
편저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시편 127:1) 그렇습니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  
는 꽃과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  
라 하느님의 힘에 철저히 의탁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  
십니다. 또한 하느님의 힘과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

신을 온전히 비운 그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  
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만  
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여전히 성장시키고 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생명과 성장  
의 양식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져다주어라.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며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기운으로 핀 봄꽃들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듯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피운  
사람들, 하느님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

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지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기에 성모님께서는 "너희는 또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져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께서 너희 삶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빛과 기쁨이 되어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성모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 사랑을 마음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 26:39)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뜻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희생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 예고를 받으시던 순간 성모님은 깊은 기도 중에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받아들으신 하느님의 뜻은

자신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배신하며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공격과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마태 5:44-48)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고,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그 자체이시고 참된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늘 자신 안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십시오. (마태 5:14-16)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을 저주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한 자루일망정 촛불을 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M**

나는 하느님의 뜻으로 여기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여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사랑으로 단순한 삶과 풍요로운 자비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내 아드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께 이르는 길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기쁨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맙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아드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



다.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맙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아드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

2008년 5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 오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주님, 당신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께 외치고 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오소서, 저는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소서, 저는 마음을 다해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께서 오심을 기뻐합니다. 오소서, 저의 영혼과 존재 전체가 당신께로 들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목숨을 다해 하나의 외침, 그리움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 제 영혼과 육신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당신을 찾나이다.

-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마음속으로...)

오소서, 주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일치되어 있는 저의 마음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모르셨을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당신 백성의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 처럼 저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당신께 느끼셨던 그 똑같은 사랑과 갈망을 지금 어머니와 함께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갈망은 어머니께서 그분의 몸에 당신을 잉태하셨던 순간부터 당신의 죽음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까지 타올랐던 그 불과 같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초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마음을 나에게 주도록 초대한다. 그래야 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내 마음과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부탁

하는 것을 스스로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뿐이고 실천하지는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부탁한다. 그럴 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6년 5월 15일)

마리아여,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당신의 마음과 같아지기 위해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웁니다. 또한 제 마음과 영혼은 끊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마음속으로...)

예수님, 성 요한이 묵시록에서 쓴 말씀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록 1: 17b-18 22: 17, 20)

-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마음속으로...)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당신께서는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주시는 빛이심을 제가 믿기에 저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 나아가 제 마음과 영혼을 당신을 향해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저의 모든 어두움



## 주 예수님!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을 몰아내주시고 제 영혼 구석구석, 특별히 상처받고 죄와 나쁜 습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어둠이 집을 짓고 있는 그곳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서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 존재의 심연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 나이다.

- 빛 중의 빛이신 예수님! 당신의 빛으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마음속으로...)

주 예수님, 저희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매 순간 신앙과 사랑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당신께 열기 위하여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당신께 대한 갈망을 가득 채워주시어 그 갈망이 그들 자녀들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혼돈과 불안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사랑과 화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악의 어둠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많은 생명들이 낙태를 당하고, 비록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직 사랑만이 줄 수 있는 빛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침묵 중에 자기 자신의 가정, 자기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생각한다.)

주 예수님, 당신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발산하는 등불이 되도록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오는 당신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교회가 찬양과 기도, 사랑과 평화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충실한 신부로서 당신께 충실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주소서. 교황,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당신 교회 내의 모든 공동체들과 수도회들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이신 당신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당신의 교회가 끊임없이 당신의 오심을 노래하고, 당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외치나이다.

-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오십시오! (마음속으로...)

주 예수님,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죄와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써 씻어주십니다.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애원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이 세상 안으로 오

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불의와 미움이 있는 곳에, 폭력과 속임의 영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는 제가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 앞에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 당신과 저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어둠을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오시는 당신께 열릴 것입니다.

-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비추어 주소서! (마음속으로...)

나의 예수님, 이 성시간 기도로 저에게 당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명을 다해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완전히 소유주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의 빛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빛의 증인이 되게 해 주소서. 저를 통해 저의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말씀하신 산 위의 마을에서 빛나는 빛이 될수 있도록 제 안에 빛을 비추어주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이 당신을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침묵 중에 자기가 축복과 치유의 기도로 기도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봉헌한다.)

**축복 기도 :** 주 예수님, 당신께서 병자와 장애인, 죄인들, 당신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당신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한 자신들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당신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당신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악속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을 거슬러 일을 하고, 당신을 부정하고자 애쓸지라도 당신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지금 저희 위에 펼치시어 치유시켜 주소서! 저희를 비추어 주시어 당신 성령의 은총을 저희 위에 내려 주소서. 저희 마음과 영혼의 병들고 어두운 구석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마음이 부서지고, 그 마음이 당신과 다른 이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십시오! 저희를 축복주소서.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저자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O.F.M  
옮긴 이 : 이미림

묵상 : 예수님, 당신은 겿세마니 동산에 혼자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씀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태26:38) 아마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다. 적어도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던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서는...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 사람이 당신의 고뇌를 덜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당신의 어머니만이 이처럼 참혹한 순간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성령의 빛을 받아 깨닫게 되시어 마음속에 아드님의 모든 가르침을 충실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마리아만이 당신을 위로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만이 이처럼 절망적인 고뇌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사랑하고 흠송하는 마음으로 침묵하시면서 그 섬세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마음으로 함께 계시실 때에만 이처럼 절망적인 고뇌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께서 곁에 계셨다면 겿세마니는 최상

의 이탈 장소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구원과 공동구속을 위해 수난을 바치시는 그 봉헌이 절정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에게 위로라고는 전혀 없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신 예수님의 '예(fiat)'를 아버지께서 받아들여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요, 예수님을 돕고 계시는 아버지의 자비의 상징이며 도구이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루카 22:43)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태 26:30-3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 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 거룩하신 어머니만이 것처럼 절망적인 고뇌의 고통을 덜어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 (마태 26:36-45)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이제 저는 침묵 중에 당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를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침묵 중에 머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이 잠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마리아님, 당신은 겐세마니 동산에 계시지 않았지만, (...) 어머니의 사랑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하오니, 제가 당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 기도 : 예수님, 성모님, 저는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신 두 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두 분과 함께 걸어가며 저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 두 분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셨을 때 멀리 있었을 뿐 아니라, 저의 말과 행동으로 두 분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형제자매들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실하지 못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즐겁게 지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분의 형제 자매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모님, 제가 범한 모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두 분을 따르며 두 분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오니 저를 받아주시어 두 분의 고통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저의 구원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 처럼, 가족, 공동체, 교회와 세계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두 분과 함께 세계의 구속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님, 비탄에 잠기신 어머니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십자가 아래 그대로 서시어

비통하게 우시는 어머니

예수님 곁에 끝까지 계시도다.

성모님, 제 마음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모든 상처를 깊이 새겨주소서. **M**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바티칸에서 메주고리예의 인준을 결정 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유럽의 한 언론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명한 성모 발현지인 메주고리예에 대한 인준이 바티칸의 손으로 직접 넘어갔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 일은 마치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일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같기도 하다. 아니면 베네딕토 16세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신비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인가?

**"제가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사라예보 대교구 총대리인 마또 조브키치 몬시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국자에게 직접 들어 본다. 이일에 대한 책임자들은 로마의 바티칸이 메주고리예 성모 발현 조사에 대한 방법과 상황에 따른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교구 혹은 지역 교회가 발현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는 1981년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된 것에 관련하여 대단

히 진전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사라예보 대교구 총대리인 마또 조브키치 몬시뇰은 "제가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라예보 추기경의 대변인이며 이전까지는 메주고리예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조브키치 몬시뇰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주고리예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좋은 것을 느끼고, 성사를 통해 화해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스피릿 데일리에게 말한다.

사라예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빈코 플뤼치 추기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메주고리예 발현 전국 조사 위원회는 바티칸이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지역 주교에게서 메주고리예 발현에 대한 판단권을 박탈한 후 출범되었다. 총대리는 전국 조사 위원회가 바티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을 받을 때까지 어떤 행동을 취할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발현이 끝난 후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이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큰 변화이다. 총대리의 발언은 결코 대수롭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

이 메주고리에 발현 인준 권한이 메주고리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단죄하려고 애쓰는 메주고리에 속해 있는 모스타르 교구의 라트코 페리치 교구장 주교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권한은 이미 오래 전에 그의 손을 떠났었으며, 폴뤼치 추기경이 이끄는 전국 조사 위원회가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이제, 메주고리에 발현 전국 조사 위원회는 성모 마리아의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한 진실여부는 교구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판단을 넘어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인준은 그보다 더 상위 기관인 로마로 옮겨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스타르 교구장의 권한을 박탈한 최초의 결정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었던 현 교황 베네딕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발현 여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재조사되어 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보여진다.

### "저는 메주고리를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서학자인 조브키치 몬시뇰은 윤리신학자와 교회법학자를 대동하고 5월 7일 메주고리에서 특별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목적은 사제들이 성사들, 특별히 발현지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해성사를 어떻게 집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회 당국자의 권한이 발현에 대한 판단에서 성사와 전례 집전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전에는 본인 자신이 메주고리에 대해 의혹을 표현했던 조브키치 몬시뇰은 "저는 메주고리를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바티칸 국무원장이며 교황청의 제2인자인 파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이 최근 메주고리에 발현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 비쳤다. 바티칸으로 권한이 이양되었다는 이 새로운 진술은 모스타르 교구장 주교가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이 거부되거나 단죄되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들의 반대 입장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오랫동안 지적으로 완고한 인물로 간주되고, 그가 사적 계시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기존의 통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의 전임자의 심오한 신비적 영향력을 암시적으로 언급했다. 사실, 지난 주 추모 미사에서 요한 바오로 2세를 상기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로 인해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언급하고, "저는 근 40년간 그분을 동반했지만, 이제 그분께서 저와 동반하고 계시고,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말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전임 측근인, 크라코프 대주교 드 지위츠 추기경이 그랬던 것처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자연적" 성격에 대해 언급했다 (베네딕토 16세는 "그분은 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많은 특성들 가운데, 이례적으로 영적이고 신비적인 감각을 지녔던 분이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주(2008년 4월 3일) 제목 기사는 "전임 측근이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의 영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바로 그 영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단죄의 위협에 처해 있는) 메주고리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의 여부다.



## 주교회의는 이미 사목적으로 메주고리예와 동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라예보의 대주교 풀뤼치 추기경-



베체뤼니 리스트에서 베르포네 추기경의 명이 담긴 그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가 메주고리예를 언제 재조사할 것인지 물었을 때, 사라예보의 대주교 풀뤼치 추기경이 대답한 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메주고리예에서 있는 일들은 우리 주교회의는 재량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서 결정을 내리고 임무를 부여하는 그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사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 주교회의는 이미 사목적으로 메주고리예와 동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만 메주고리예 발현에 관한 주교회의의 첫 번째 결정(역자주: 1991년 4월 10일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교회의는 자다르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모스타르 교구의 주교는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동기로, 그외 여러 다른 동기 유발로 세계 도처에서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목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스타르 교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교들 또한 메주고리예 그리고 메주고리예와 관련된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건전한 신심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여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 주교들은 특별히 그에 상응하는 전례-사목 지침서를 발간할 것이다.")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추기경이 바티칸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은 더 이

상 그에 대해 권한이 없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 역시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것은 참으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이는 수년 전에 추기경 교구청에서 총대리가 메주고리예 발현은 풀뤼치 추기경이 이끄는 전국 조사 위원회 손에 놓여져 있고, 발현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피릿 데일리에게 말했던 그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그 당시, 조브키치 신부는 메주고리예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모스타르 교구장 라트코 페리치 주교(그리고 그의 전임자 자니치)가 라칭거 추기경에 의해 1986년 권한을 박탈당했을 때, 풀뤼치 추기경은 메주고리예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나는 메주고리예와 관련한 모든 것에... 기도 중에 매일 그곳엘 갑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라칭거 추기경이 모스타르 교구 주교의 인준 권한을 박탈한 것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명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작고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폴란드 크라코프의 어느 부부 사이에 오간 사적인 편지들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메



주고리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의 발현지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신심에도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글로써 확인시켜 주었다. 조피아와 마렉 ("Z. M.") 스콰르니치에게 보내진 1991년 3월 30일자, 1992년 5월 28일자, 1994년 2월 25일자 편지에서 메주고리예(폴란드어로는 "Medziugorje")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고 메주고리예-로마의 여정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썼다. 교황은 "나는 메주고리예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하여 조피아에게 감사합니다. 나 역시 기도 중에 매일 그곳엘 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거나 그곳에서 기도의 부르심을 받는 모



든 이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르심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다. 작고한 교황이 사적 대화에서 메주고리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을 말한 바 있는 주교들도 그와 유사한 증언을 하지만 모스타르 교구청을 자극하길 원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메주고리예를 파티마와 루르드와 같은 역사적인 성모 발현지로 믿는다.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순례자들, 수만명의 사제들, 그리고 수백명의 주교들과 추기경들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다. 바티칸 관리들이 조용한 가운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 베네딕토 교황이 그와 배치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로 메주고리예를 단죄하려고 했던 모스타르 교구장의 문서를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현 교황인 라칭거 추기경이다. 라칭거 리포트로 알려진 책에서 메주고리에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많은 발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대의 징표"와 같다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던 사람 역시 현 교황이다. 또 다른 한편, 라칭거 추기경은 메주고리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베네딕토 교황이 부정적인 결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 다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영원히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인가? 바티칸이 대단히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반목(프란치스칸들과 일반 교구들 사이의 반목을 포함하여)이 존재하는 지역의 소수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메주고리예가

너무 크고 세계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가? 1986년 모스타르 교구의 권한을 박탈한 것과 같은 조치는 전례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프란치스칸이 사목하고 있는 교회를 가득 넘치도록 채움으로써 다른 발현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메주고리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폴뤼치 추기경은 수년 전 메주고리예가 일반 교구와 프란치스칸 사이의 분열(1980년대 두 명의 프란치스칸과 더불어 일어났던 논쟁에 기인한)을 초래했다고 주교 대의원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메주고리예를 "가짜 은사"가 내리는 곳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주교회의에는 단 네 명의 멤버가 있는데 폴뤼치 추기경, 그의 보좌주교, 반냐-루가 교구장 그리고 메주고리예가 속해 있는 교구장으로 메주고리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온 모스타르 교구장 라트코 페리치 주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신문에 의하면, 요한 바오로 2세의 기일 그리고 드지위즈가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교황은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요한 바오로 2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도시 로마를 축복하곤 했는지를 묘사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와의 지난 수십년간의 일화들을 떠올리곤 했다. 이제, 메주고리에 조사 권한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에서 바티칸으로 막 이양된 것이다. 최신 보도된 기사들에 의하면, 고인이 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살아 생전 처럼 메주고리예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M**

<<http://www.spiritdaily.net/index48.htm>에서 발췌 선교회 편집부 번역>



# 성모님께서 왜 발현하고 계십니까? 우주의 여왕 (4)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율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미리야나 :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성모님께 여쭙었을 때, 우리가 수녀나 사제의 길을 선택하면, 진정한 수녀와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기로 결심하면, 좋은 가톨릭 가정을 이루어 이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이 세상에 모범이 되다니요?

미리야나 : 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결혼과 수녀원 혹은 독신중 어떤 것을 결정했습니까?

미리야나 : 아직 못했습니다.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미리야나는 졸업 후 동료 대학생이었던 마르코 솔도와 결혼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 수사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의 조카이다.]

질문 : 성모님께서 매년 혹은 특별한 시기에 발현하실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니까?

미리야나 : 발현 초기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보내고,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십니까?

미리야나 : 우리 여섯 명의 발현 목격 증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느님께서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파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과 의사소통하시는 전파선과 같습니다.

질문 : 당신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으니까?

미리야나 : 비밀을 제외하고,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질문 : 미리야나, 성모님께서 왜 발현하고 계십니까?

미리야나: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후에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 비밀들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게 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미리야나 : 비밀들이 실현되는 시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는 것이 혹시 세상이 종말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습니다. 성모님께서 묵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그것은 비밀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미리야나 : 아니요, 조금도요. 저는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상의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걱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당신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끔찍한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시지만, 사탄은 그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을 종종 인용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리야나 : 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 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자유로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당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시지만, 사탄은 그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습니다.

질문 : 그 점에 대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물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모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당신은 열 가지 비밀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들이 각각 실현될 날짜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미리야나 : 네.

질문 :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미리야나 :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질문 : 우리에게 뭔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인류에게 눈에 보이는 표징을 주시기 전에, 세상에 대한 경고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질문 : 그런 일들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납니까?

미리야나 : 네, 저는 그 일들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질문 :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까?

미리야나 : 각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저는 페타르 류비치치 신부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그 비밀들에 관해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야나 : 제 역할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확인시키고 세상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자극이 될 것입니다.

질문 : 첫 번째 징벌이나 사건, 또는 경고의 때와 메주고리에 약속된 영원한 표징이 세워지는 시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미리야나 : 눈에 보이는 표징이 세워진 후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하느님을 매우 잔인한 분으로 들리게 만듭니다.

미리야나 :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사랑, 사랑이십니다. 잔인함과 사악함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하느님을 택하거나 사탄을 택합니다. 자유로이 사탄을 택하고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언젠가, 성모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린다고, 그들은 지옥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결과 지옥과 하나가 되어 갈등, 무질서, 평화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그들은 변함없는 분노의 상태에서 하느님께 대항해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통 당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느님께 돌아서서 도움이나 구원을 청할 자유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미리야나 : 그들은 하느님을 증오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증오했고 사태가 잘못되면 모두 하느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즉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해 말씀하십니까?

미리야나 : 네, 그것때문에 성모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시며, 당신 자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M**





## 성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에에서 엘레오노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손에 책을 들고 메주고리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4월 20일 아침 피사의 한 친구가 나를 요조 신부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날 저녁 성모님은 포드브로도에서 이 시기에 당신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한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말하며 엘레오노라도 데리고 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레오노라를 만나서 함께 돌아오는 중에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의 양친들은 행운을 찾고자 슬로베니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행운은 바로 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성적으로 학위를 마치고 난 뒤, 이름있고 유능한 경제전문가로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마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고 수도 대학에서 일하도록 불러주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해상 스키를 타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메주고리에에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하루만에 썼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할 수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기쁨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있었고, 또 자신에 대한 자만심으로 숨이 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때부터 유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토리노 은행 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곳 사람들은 내가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휴가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메주고리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세상을 여행하듯이 그렇게 호기심으로 메주고리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에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산위에 있을 때,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봉헌하기를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왔던 기쁨과 평화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은행국에서 일하기 위하여 토리노로 간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복음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경제적이고 수학적인 머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의지하고 있던 모든 재물이 이제 예

수님과 성모님을 발견한 은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겨졌습니다.

나는 그리스의 한 섬인 티노스(Tinos)에 다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그룹을 조직한 한 사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메주고리예로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에는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때부터 뜨게질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에게 주어지게 될 은퇴를 기다리며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나를 이해하였고, 내가 조그마한 아파트를 찾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테네에 스페인어를 가르치려 갑니다. 그리고 수입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단지 기

도와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휴가를 얻으면 이곳에서 45시간 걸리는 메주고리예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고 또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이 세상의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 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 내가 누린 부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력이나, 그리고 나의 감독자들로부터 받던 좋은 평가에서도 결코 얻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어서 여기 평화의 오아시스로 데려오신 사랑하는 나의 천상의 어머니께 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또 나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늘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M**

## 중국 선교사의 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선교회의 모든 봉사자님들,

주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형제님과 자매님께 함께 하시어

주님과 성모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축복 가득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사랑으로 서울에서 보내 주는 메주고리예 소식지가

이곳 중국 천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먼저 레지오 단원들부터 읽고 다음에는 모든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몰랐던 성모님께 다시한번 사랑 깊이 마음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레지오 기타 시간에는 서로 느낀점을 얘기할 때에는

다시한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과 선교회의 봉사자님들 모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며.....

중국에서 한요한과 올리안나 드림

# 성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

이 마리아

5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 보니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마음에 새삼스럽게 눈물만 납니다. 하늘아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너무나 힘들었고 가슴 아픈 사연의 연속이었던 저의 지나온 삶은 15살 때 7남매를 두고 어머니가 가슴에 한을 품으신 채 돌아가실 때부터이니, 그런 결과를 만든 아버지와 한 여인이 무책임한 행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모녀를 집에 받아들이고 딸처럼 거두어 주던 어머니는 돌보아 주던 사람에게 남편을 빼앗긴 채 몇 년 동안 서로 자식을 낳아가며 한 집에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7남매를 기르면서도 자식들한테 고향 한번 쳐 보지 못하시는 무남독녀 외동딸로 고퍈만 자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긴 후에 경제권마저 없어진 어머니는 오직 어린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과 한 지붕 밑에 두 집 살림을 살면서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은 밤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낮이면 태연하게 지내야 하는 고통으로 까맣게 피멍이 들어 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딸같은 사람 앞에서 매를 맞기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다 못해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욱 더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새엄마와 함께 들어온 또 한 분의 외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의 연속을 제공한 분

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살고 있던 집을 몰래 팔고 젓먹이가 있는 엄마와 우리만 남겨둔 채 새엄마와 함께 떠나버렸을 때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느낀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새엄마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식들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새엄마는 "나도 젊은 나이에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며 도움을 청하는 어머니를 차갑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팔린 집에서 쫓겨나 잠잘 곳 마저 없어 쓰러져가는 천막집에서 가마니를 깔며 젓먹이를 데리고 습기차고 바람부는 곳에서 살면서 산후조리조차 못하고 고통을 당하던 어머니는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이 걸려서 약도 제대로 못써보는 몇 년의 병치레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개밥의 도토리 가 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늘만 쳐다보고 울던 어머니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군대가 있던 큰오빠를 그리워하듯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셋째아들과 이제 막 젓을 떼 막내를 생각하면 어떻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 곁에 남고 싶어 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새엄마와 한 방을 쓰면



서 겪는 고통으로 자살하려고 벽속에 수면제를 모으고 계신 것을 찾아낸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지만 세 딸 중 맏딸이었던 저는 엄마의 고통과 한 많은 세월을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울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고통말이라고 부르시며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한없이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 사랑을 차갑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

대꾸 한 번 못하고 사는 불쌍한 엄마가 야속하고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의 가슴에 배신이라는 비수를 꽂고 39살 나이에 자식을 두고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게 하고 우리 7남매의 일생을 비극의 어두움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와 새엄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도 나의 아버지 이기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미워하면서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메마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일도 없었지만) 우리 입에 들어왔다면 한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잘 모실 수 있었던 새엄마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잘해 보자구 하면서도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들 사이에서 동생도 누나도, 언니도 아닌 15살짜리 엄마가 되어야만 했던 나는 더구나 새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새엄마의 두 아이들 틈에서 중간에 태어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그 아이들 틈에서 인격이 없는 사람으로 희생되어 버리는 동생들을 보아야 했고, 그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밥 색깔이 다른 도시락을 보고 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새엄마와 할머니에게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러느냐고 울고 불고 하였지만 모든 것은 저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양심없는 어른들이 저지르는 죄를 심판하기에는 나이 어린 저의 반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반항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지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 양심없는 어른들이 저지르는 죄를 심판하기에는 나이 어린 저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사랑이라는 품속에서 시간의 제한조차 받지 않고 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감당키 어려운 시련만을 주시는지요? 저는 행

복하게 살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무자비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제 동생을 통해서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구로동 본당에 계시던 이종호 신부님은 저희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까지 온 가족이 영세를 받았고 자연유산으로 임신이 안되던 저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아오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봉헌했습니다. 영세를 받은 후 구역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의 아픔을 기도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짧은 신앙생활로 나의 상처들을 잊기에는 미움과 증오의 뿌리들은 너무나 깊이 박혀있었나 봅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살아 온 저는 어느새 마음이 다시 굳어져 결국은 20년의 차가운 냉담생활로 되돌아 가면서 제 마음 속에서 스스로 제일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합니까?"하며 다시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동생들과 오빠를 보면서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며 감사하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듯 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품에 꼭 안아주실 것만 같은 성모님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

왔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마다 좌절감에 혼자 울고 지낸 적도 많았고 세속 친구들과 어울려 모든 것을 잊어버려고도 했으나 제 가슴속의 허전함은 더욱 더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미국에 와서 메주고리예를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간들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었으나 웬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 동생은 메주고리예에서 있었던 일들을 진지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성모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모두 치유되었고 육신의 어머니는 안계시지만 천상의 어머니인 성모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부족함 없이 주고 계셨는데 오직 본인이 몰랐을 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메주고리예 8박 9일을 울면서 지내다 왔으며 그 눈물은 예전의 눈물처럼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는 싶지만 자신이 어머니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고 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몇 배나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언니를 치유시켜 주시어 언니의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성모님께 기도 드렸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큰일났구나.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첫 날, 성당에 들러서 성모님께 인사 드리고 짐을 풀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몇 시쯤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힘이 이끌려 무조건 뛰쳐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이리다 길을 잃어 버리면 어떻하나?"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내 몸은 어디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길을 달리면서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모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향해 오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목에 걸린 스카프를 보고 같은 순례팀임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발현산이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지금이 몇 시이며 이곳이 어디쯤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더니 지금은 새벽 3시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어두운 새벽에 겁도 없이 어디를 가느냐고 하며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으며 일행과 함께 비 온 뒤의 발현산을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동생의 작은 신발을 신고 왔기 때문에 발이 짓무르고 아팠으나 마음은 한없이 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짓물러져 디딜 수 없을 만큼 아픈 발로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오르내리며 평생을 무

겁다고 울면서 지고 온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단순하고 가벼운 십자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원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주님과 성모님의 배려하심으로 절대로 또 넘어지는 일없이 잘 살아주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오아시스 수도원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저의 이기심을 뉘우치며 많이 울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비스카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요조신부님의 안수를 받은 후 평화를 맘껏 느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있는 동안 미국 비자를 못받아 혼자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성모님, 저의 남편 요셉도 이곳에 불러주시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세속 생활에만 열중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예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 드렸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여보, 나 비자 나왔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불러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새벽 길에서 만난 자매님들과 즐거웠던 시간, 안상익, 류해욱 신부님의 깊은

## 성모님의 얼굴이 저를 보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신 배려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믿게 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뉴욕에 온 남편과 함께 동생부부의 배려로 퀸즈성당에서 주관하는 기초성령세미나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고 남편도 나도 한없는 눈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남편과 저는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음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미움의 뿌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함께 메주고리에 순례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신부님이셨던 임언기 신부님, 김기수 신부님의 영적 말씀과 겸손하신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 받는 딸과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산과 발현산을 오르내리며 변화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렸고 순례일정의 하나인 치유예절 때 임언기 신부님, 김기수 신부님의 안수를 받고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성모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십자가산을 올라 갈 때, 그곳에 있는 12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성모님, 저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하고 기도드릴 때 웬지 태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니 태양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그 속에서 성모님의 얼굴이 저를 보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한 점 티도 없는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2갑의 줄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담배를 끊고, 더욱 놀라운 것은 새벽이면 일어나 묵주15단을 바치면서 낮에도 묵주를 손에 꼭 잡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레지오 단원이었을 때, 회합 때 하는 묵주기도가 길고 지루해서 묵주기도가 끝날 즈음에 마지못해서 들어가곤 하던 남편이, 대중가요는 가수처럼 불러도 미사 때 하는 성가는 꿀떡은 병어리 같았던 남편이, '주여, 임하소서'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종이에 쓰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같까?" 하는 불신의 잔뿌리가 남아 있었는데 새벽 6시 반 미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며 성모님께 의탁하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이제는 세속생활에 빠져 정신 없이 살아왔던 남편이 저토

록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 속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이었으며,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마음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결 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갖고 가슴 아파하며 울고 사는 지를 알게 되니 용서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지난 옛날의 과거에 얽매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이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이 저를 주님과 성모님께 인도해 준 것이라면 비록 지난 시간들이지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노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동생이 말하는 성모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동생부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길에서 만난 분다, 수산나 자매님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성령세미나 봉사자님들, 김인성 신부님과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모님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제는 지난 과거를 다 버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M**

- 메주고리에 8호에서발췌 -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웹관리자: 윤경만

편집위원: 최성득, 최 레지나,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 어머니 ...

-묵주의 기도를 드리며-

안 희숙 엘리사벳

어머니  
오늘은 푸른 오월의 강에 두레박을 드리우고  
송이송이 피어나는 장미꽃 향기 짙은  
은총의 샘물을 길어 올립니다

너무 아름다와 젖어 내리는  
오월의 자연  
풍요로운 어머니의 가슴과 만납니다

햇살아래 부서지는 은빛 물줄기  
가만가만 다독이시는 따사로운 손길

바람의 음울 안에  
오래 찢고 상처난 아픔의 치유  
타드는 갈증들에  
해갈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방향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부서진 가정으로 갈라진 반쪽들,  
나약하고 무디기만한 우리의 의지들이

티벳트와 이라크의 난민  
아프리카의 기아  
탈북자들의 허기져 굶주린 눈망울...  
온갖 세상의 오물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간

파티마, 루르드, 메주고리에...  
온 세상 곳곳에서  
당신 자녀들의 마음 흔들어 깨우시며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 맺히신 어머니

영혼에 스미는 꽃향기  
가슴 밑바닥까지  
침묵으로 녹아내리는  
촛불 앞에 서서

이 밤  
아린 가슴 그리움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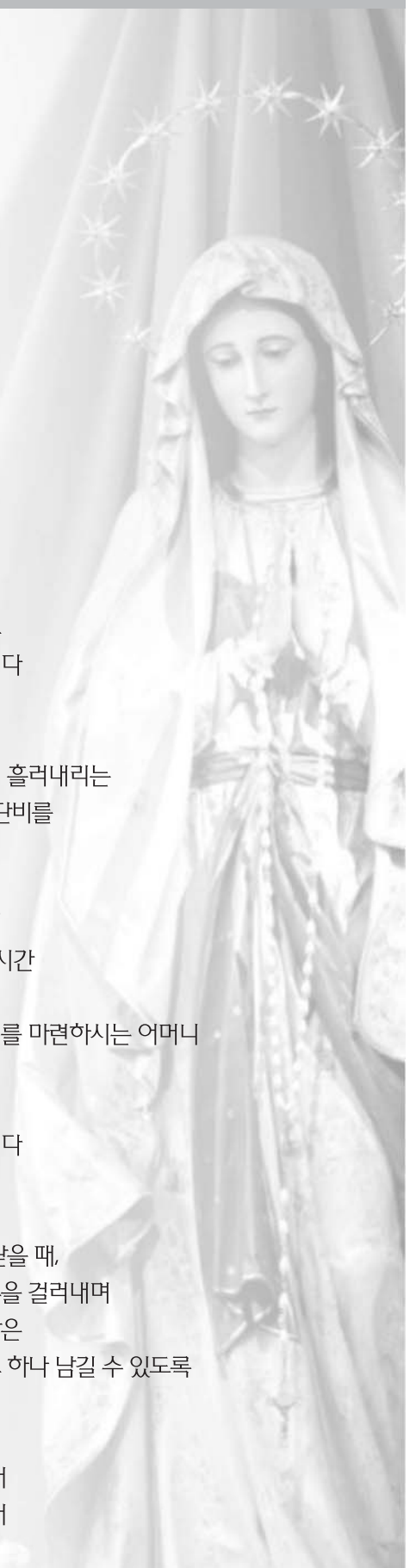
어머니  
당신의 초록빛 품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꽃물,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마시우게 하소서

삶의 자리 자리마다에  
허물로 누벼 놓 지난 시간  
맺힌 이영 풀어내시며  
화해의 오색빛 무지개를 마련하시는 어머니

온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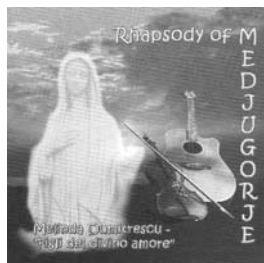
이제와  
마지막 삶의 숨결을 단을 때,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걸러내며  
산과 강, 하늘, 호수 담은  
크고 아름다운 마침표 하나 남길 수 있도록

어머니  
우리 위해 빌어 주소서  
우리 위해 빌어 주소서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히어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세계성서공회와 한국 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 안내  
(색갈은 검정색, 곤색, 금색 오렌지색)

**성경 1.** (1단, 대, 일반) 세계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 번역

**성경 2.** (1단, 대, 금장, 색인, 지퍼) 전용박스포장 검정색

**성경 3.** (1단, 특대, 금장, 색인) 성인용: 큰 글씨체로서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성경 4.** (2단, 대, 금장, 색인, 지퍼)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께가 얇습니다.

**성경 5.** (2단, 46판, 금장, 색인, 지퍼) 한국 교회 공용 번역으로 매일 미사 책 크기)

**성경 6.** (2단, 일반 포켓용) 한국 교회 공용 번역본으로 일반 포켓용

**성경 7.** (2단, 포켓, 색인, 금장, 지퍼)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 부활절 15% 할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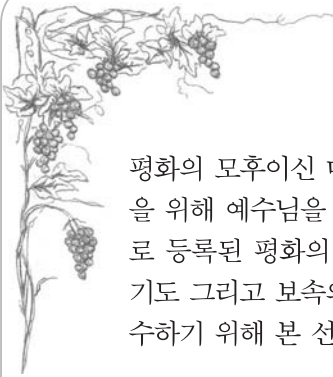
-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류해옥 신부 지음 / 210면)
- 함께 걷는 하느님과 인간 (이영현 신부 지음 / 218면)
- 엄마의 화살 기도 (두숨 역음 / 소책자)
- 생활교리 (개정판 신자 생활 안내 / 562면)
- 그래도 못다 한 말 (김병업 신부 유교 집 / 252면)
- 지혜로운 삶 (짐 포 리스트지음 / 246면)
-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 (파울라 지음 / 243면)
- 가족을 위한 엄마의 십자가의 길 (수도회 역음 / 소책자)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 단계 (마태오 린 지음 / 303면)
- 미사를 통한 치유 (로버트 드그란디스 지음 / 136면)
- 배꼽 없는 사람은? (권상혁 역음 / 192면)
- 연옥 실화 (막시 푸양 지음 / 190면)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지음 / 157면)
- 가장 행복한 약속 (박요안 영식 신부 지음 / 125면)
- 내 안에 말씀이 (이동호 신부 지음 / 208면)
- 십자가 성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웨이 집 지음 / 135면)
- 하느님의 사랑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 / 소책자)
- 행복을 위한 선택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상처 입은 사슴 (윌리엄 존슨 지음 / 230면)
- 하느님을 향하여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화 제대로 내기 최기산 (버트 게저 지음 / 소책자)
- 아기 예수 데레사의 정신 (리아그르 신부 지음 / 244면)
- 한 송이 해바라기처럼 (고마테오 신부 지음 / 168)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수녀 지음 / 284면)

- 도토리 키 재기 (변 희선 신부 지음 / 소책자)
-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 (보비 리드 지음 / 160면)
- 자동판매기가 되신 하느님 (김영진 신부 지음 / 350면)
- 이역하늘 아래서 (이석현 지음 / 185)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 키딩 지음 / 175면)
- 하느님 나라의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토마스 키딩 지음 / 139면)
- 주님의 기도로 관상까지 (부르고스 가르멜 수녀원 지음 / 295면)
-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 / 1 & 2면)
- 토마스 머턴의 씨앗 (토마스 머턴 지음 / 223면)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302면)

책 판매 수익금은 박창득 몬시뇰님의 북한 선교를 후원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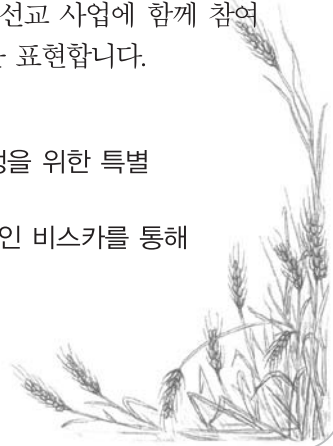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 )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회원번호(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소식지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숙, 강은미, 강찬구, 강현정, 고아네스, 광로사, 김건일, 김경순, 김경희, 김남숙, 김마데라, 김마리아, 김명주, 김세실리아, 김수도 다윗, 김숙영, 김안나, 김윤나, 김윤식, 김원희, 김임직, 김주희, 김정선, 김학실, 김현정, 김혜숙, 노마리아, 노순재, 문홍식, 문창희, 민헬레나, 박선명, 박안나, 박영실, 백안셀모, 손은하, 송베드로, 송희철, 신명순, 신순덕, 신조셉, 안세실리아, 안소영, 엄안젤라, 여애경, 오경옥, 오루시아, 오순이, 오창석, 유광문, 유바올라, 유병필, 유스티나, 유제영, 유혜순, 윤경만, 윤정숙, 윤현옥, 이마리아, 이메리, 이미애, 이상환, 이승례, 이영옥, 이정형, 이정옥, 이현숙, 장민화, 잔슨윤숙, 전오질라, 정마리아, 정재향, 조용옥, 조은자, 주숙, 지모니카, 최덕희, 최루시아, 최미카엘라, 최바르바라, 최상환, 최예준, 최인자, 최중환, 한캐더린, 황계자, 황정애, 황종숙, 황혜정, 홍지영, 브르클린 성당 바다의 별pr, 익명,

Y. L, Mary K Lee, C. Shin, Ae Cha Wilson, Sung Hong, Paul & Mary K, Lee, Eileen Cho, Paul Ryou, Park Juliana, Young Y. Han, Heung C Park, Insuk Mullins, Kim Madera, Peter Shin, Henry Yerger, Myong S. Spence, Sunok Blum, Angela Fashion, Okson H Baker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추가 후원금 포함)	\$5,222.00
지출 :	
매주고리에 소식지, 메시지 목상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9,395.86
잔액	- \$ 4,173.86



"유혹에 시달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십시오.  
곧 마리아에게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강한 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 성 베르나르도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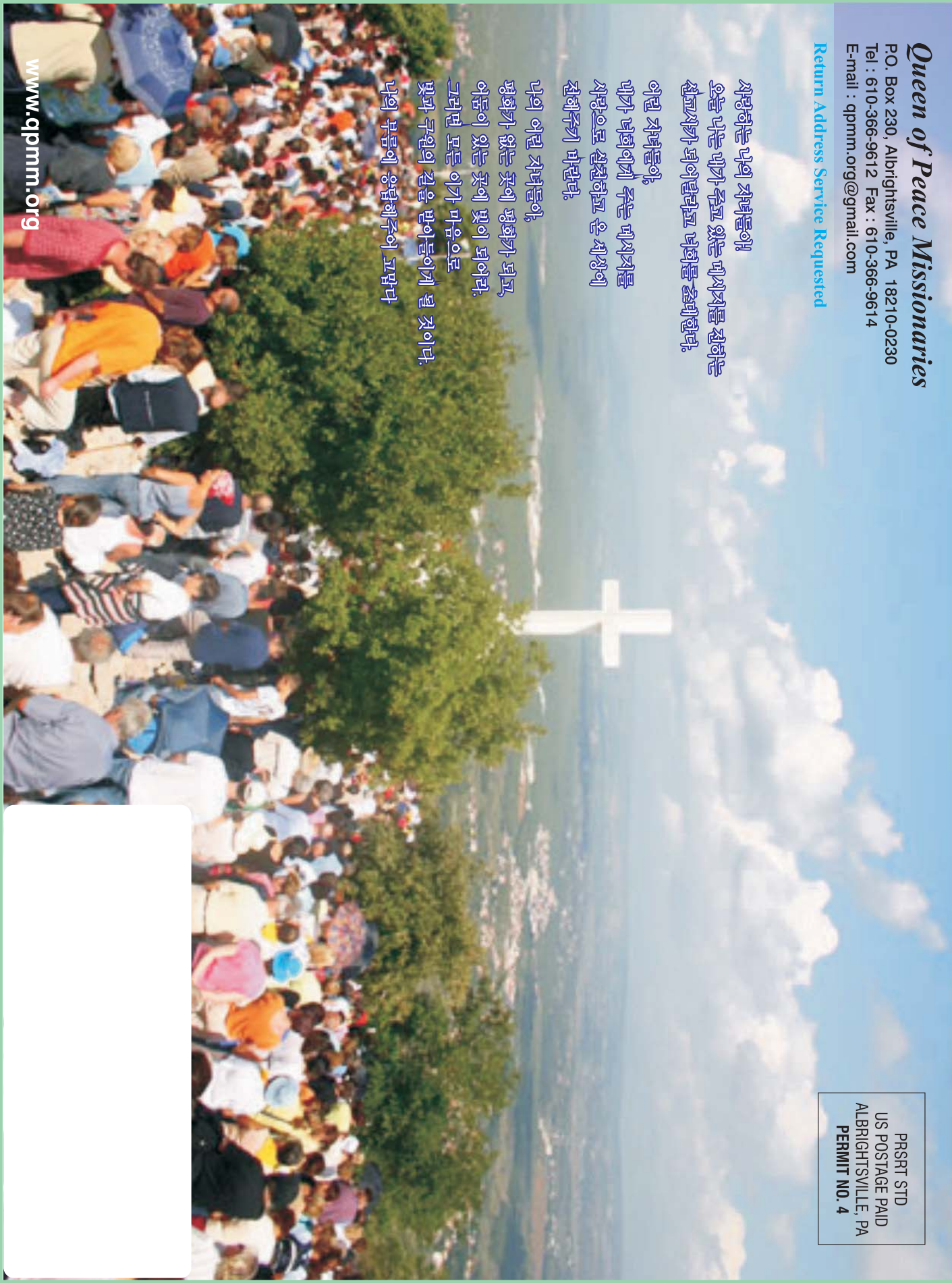
Return Address Service Requested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축대한다.

아런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아런 자녀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www.qpmm.org